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조금 쌀쌀하고 흐렸다가  
말아짐.

제목 : 이사 갈 아파트 주변 둘러보기

여름방학에 이사 갈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았다. 처음엔 정문 관리실에서부터 둘러보면서 걸어다녔다. 여러 나무들과 여러 벤치들을 지나니 놀이터가 있었다. 나와 동생은 놀이터에서 놀고 싶었지만 다른 곳도 둘러보아야 해서 돌아가는 길에 놀기로 했다. 조금 더 가보니 운동기구와 배드민턴장이 있었다. 우리 배드민턴채와 배드민턴 공이 없어서 배드민턴을 치지 못했다. 하지만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였다. 나는 그 중에서 허리돌리기 운동이 흥미롭고, 쉬고 또 재미있었다. 운동기구 있는 쪽 길에는 산책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다. 가는 길에 놀이터에서 놀았다. 그곳은 바닥이 푹신하고 바닥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. 조금더 건다보니 건너편에 호수초등학교가 있었다.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황~ 했다. 여기 서울 집처럼 사람들도 많지 않고 병원, 은행 등 주변에 상가가 없었다. 아까와 다른 놀이터가 하나 더 있었다. 그곳 바닥에선 페타이어 냄새가 조금 났다.

우리 아파트 주변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상가가 없어서 불편하겠다고 하시지만, 나는 새로운 집과, 학교, 친구가 생길 수 있으니 낯설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기도 하였다.